

12 | 건설 용접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

성별	남	나이	52세	직종	건설 용접	업무관련성	높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	-------	----

1 | 개 요

근로자 전○○은 1983년부터 각종 신축현장에서 약 25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. 2008년 2월 원발성 폐암(선암)을 진단받았다.

2 | 작업내용 및 환경

근로자 전○○은 약 25년간 건설업 신축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며 주로 아크용접으로 백관(아연도금 강관) 용접 작업을 하였으며, 2004년 ○○기공에 입사하여서는 아크용접으로 강관 및 스텐레스강 용접 작업을 하였다. 주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며, 호흡기 보호구는 초기 2-3년에는 사용한 바 없고 그 이후에는 면마스크를 사용하였다. 분진이 많아 면마스크는 거의 매일 교체해야 했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 방진마스크가 지급되었다. 근로자 전○○ 및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에 의하면 용접 작업시 인화물질의 화재 방지를 위해 지급받은 석면포를 사용하였다고 한다. 현재는 버미그라스라는 유리섬유로 만들어진 용접포를 사용하고 있는데, 이를 사용한 것은 5년 정도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. ○○기공에서 사용했다고 진술한 용접봉에 대해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하면 크롬, 니켈, 망간 등이 함유되어 있다.

3 | 의학적 소견

근로자 전○○은 부모님은 노환으로 사망하였고, 암의 가족력은 없었다. 흡연 및 음주는 하지 않았고 특별한 과거력은 없었다.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이 소견은 없었다. 1983년부터 약 25년 간 용접공으로 주로 신축건설현장에서 백관, 강관, 스테인레스강 용접을 하였는데 그 동안 건강진단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한다. 2007년 12월 27일 ○○병원에서 실시한 건강 검진에서 단순흉부방사선 사진상 우폐문종대 소견이 보여 ○○병원에서 원발성 폐암(선암)을 진단받았다. 2008년 2월 4일 우폐 하엽 및 중엽 절제술을 시행하고 현재 통원 치료 중이다.

4 | 결 론

근로자 전○○은

- ① 2008년 2월 비소세포성 폐암(선암)으로 확진되었고,
- ② 폐암의 가장 큰 위험인자로 알려진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,
- ③ 약 25년간 용접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로 알려진 6가 크롬,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,
- ④ 용접 작업과 석면포 설치 작업에서 폐암 유발 물질인 석면에 함께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,

따라서 근로자 전○○에게 발생한 비소세포성 폐암은 용접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.